

## BIMP-EAGA의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전망

구보경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 요 약

브루나이 다루살람-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 아세안성장지대(BIMP-EAGA)는 아세안의 대표적인 발전주의적 공간으로서, 역내 저개발지역의 발전을 통해 아세안 경제통합을 이루고자 설립되었다. BIMP-EAGA는 2017년 'VISION 2025' 발전전략을 채택하여, 고등교육기관과 기술직업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해 소지역 수요에 기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COVID-19 대유행으로 소지역협력은 둔화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가 도래하여 노동시장과 교육환경은 기민하게 변화하였다. BIMP-EAGA는 인적자원이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도록 방안을 계획 중이나, 인적자원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이 부재하고, ICT 인프라 접근성과 디지털 교육 정도가 상이하다. BIMP-EAGA는 인적자원이 다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교육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 BIMP-EAGA의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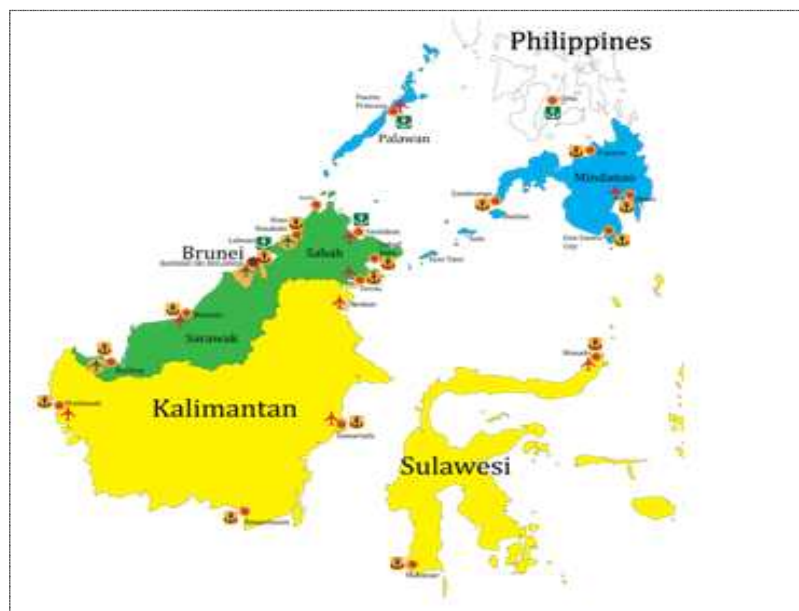
구보경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 목 차

1. BIMP-EAGA란?	2
2. BIMP-EAGA의 인적자원개발 전략과 현황	3
3. 팬데믹 이후 BIMP-EAGA의 노동시장 변화	5
4. BIMP-EAGA의 효율적인 HRD를 위한 과제	6

## 1. BIMP-EAGA란?

브루나이 다루살람-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아시아성장지대(BIMP-EAGA: Brunei Darussalam-Indonesia-Philippines-Malaysia East ASEAN Growth Area)는 해양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저개발지역 발전을 통해 역내 고도 성장지역과의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아세안 경제통합을 목표로 1994년에 설립된 소지역협력체이다(BIMP-EAGA, 2022a). 아세안의 대표적인 발전주의적 공간으로 소지역(Subregion) 간 생산 분업과 운송 시스템 등의 경성·연성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경 간 이동성과 연계성을 증대하고, 이를 통해 저 발전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현민, 2019: 259).



[그림 1] BIMP-EAGA 의 지리적 범위

BIMP-EAGA의 지리적 범위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말루쿠 제도, 말레이시아의 사바, 사라왁, 라부안 그리고 필리핀 민다나오와 팔라완을 포함한다. BIMP 4개국 면적의 62.4%를 차지하지만, 인구는 19%로 인구밀도가 낮고, 노동가능인구는 18.5%로 더욱 적다. 브루나이를 제외한 EAGA의 평균 빈곤율은 18.7%이며, 필리핀 민다나오의 빈곤율은 27.9%로 EAGA 평균보다 높은 지역이다 (BIMP-EAGA, 2022a). 하지만, 무역에 대한 기여도는 24.5%이고, 팬데믹 상황에도 해외 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EAGA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세계적 규모의 열대우림, 전 세계의 60%에 해당하는 열대 해안선과 산호대가 형성된 해양생태계의 보고이며, 수자원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2022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칼리만탄으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별 국가와 아세안은 BIMP-EAGA를 주목하고 있다(BIMP-EAGA, 2022b).

## 2. BIMP-EAGA의 인적자원개발 전략과 현황

### 1) HRD 협력 전략

BIMP-EAGA는 2017년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ADB)의 지원으로 역내 발전전략 및 행동계획을 담은 'BIMP-EAGA VISION 2025(BEV2025)'를 채택하여 '연결', '식량', '관광', '환경', '사회·문화·교육' 분야를 우선순위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는 고등교육기관(Higher Education Institution: HEI)과 기술직업교육(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기관의 협력을 통해 소지역의 수요에 부합하는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IMP-EAGA, 2017). BIMP-EAGA의 주요 산업은 농업, 어업, 제조업 그리고 관광업으로, 소지역 수요에 기반한 교육 및 직업 훈련을 통해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 부분이 주도하여 HRD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ICT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식공유를 중점으로 협력하고 있다.

<표 1> BIMP-EAGA의 HRD 협력 전략

BIMP-EAGA HRD 목표	· BIMP-EAGA에서 필요한 고도로 유능한 인적자원개발
BIMP-EAGA HRD 성과	· TVET 역량인증(70%), HEI와 AQRF 프로그램 연계(30%) · 연간 8개의 소지역 교육 및 훈련
BIMP-EAGA HRD 결과	· TVET, HEI 24개 기관 파트너십 확대, 지식과 기술 공유 · 2개의 EAGA 지역과 협력하여 최소 8개 프로그램 시행

출처: BIMP-EAGA VISION 2025.

BIMP-EAGA는 TVET 포럼과 HEI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고용수요와 기술 수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에서 사회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모든 교육과정은 아세안 교육표준체계(ASEAN Qualifications Reference Framework: AQRF)를 참고하여 시행한다. 말레이시아-EAGA는 일찍이 교육 개방을 통해 쌓은 국제적인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HRD 실무위원단(Working Group: WG)을 구성하여 BIMP-EAGA의 HRD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사바와 사라왁주(州)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외국대학이 말레이시아에 분교를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들의 유입을 유도하여 교육 시스템을 국제화함으로써, 국제네트워크 구축과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고등교육의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등 5개 언어로 된 웹사이트 'StudyMalaysia.com'을 활용하여 해외 대학과 학생 간 교류를 확대하여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과 체계를 구축하였다(Ariff, 2006: 41).

## 2) 주요 협력 현황

BIMP-EAGA의 주요 HRD 협력 사항은 총 3가지로, 첫째, TVET 포럼과 교육 정상회담 개최, 둘째, TVET와 HEI 네트워크 구축, 셋째, BIMP-EAGA 기업가 정신 캠프(BIMP-EAGA Entrepreneurship Camp) 추진이다. 공식적이지는 않으나, 사바와 민다나오주(州) 정부가 주도하여 TVET 포럼과 교육 정상회담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필리핀 민다나오 개발청(Mindanao Development Authority)과 기술교육 개발청(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 TESDA)은 2014년과 2016년에 TVET 포럼을 개최하여 새로운 기술, 모범사례,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문제점과 과제를 논의하였다(TESDA, 2016). 2018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개최된 제2회 TVET 포럼 및 교육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향으로 '①프로젝트 관리 점검 ②대중의 인식개선 ③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역량기반 교육강화 ④모니터링과 평가 관리개선' 사항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중국과 호주 북부준주(Northern Territory of Australia) 정부는 AQRF에 부합하는 고등·기술교육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팬데믹으로 연기되었던 제3회 TVET 콘퍼런스는 2023년 3월 '혁신과 인적자원개발을 주도하는 TVET' 주제로 사라왁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기반하여 '혁신과 기술, 인적자원관리와 전망, 녹색 TVET, BIMP-EAGA TVET 및 HEI 간 파트너십 강화' 등 다양한 소주제를 발표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개선사항을 논의하였다(TVETSarawak, 2023).

<표 3> HRD 협력 사항

<b>TVET 포럼과 교육정상회담개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기관들의 전문성과 핵심 역량 교류, 정기적 개최 목표</li> <li>· 제1회 BIMP-EAGA 청소년 기술 캠프, 2004년</li> <li>· 제1회 BIMP-EAGA TVET 지도자 포럼, 필리핀 다바오, 2014년</li> <li>· 제1회 BIMP-EAGA TVET 포럼, 필리핀 다바오, 2016년</li> <li>· 제1회 BIMP-EAGA HEI 정상회담, 말레이시아 사바, 2017년</li> <li>· 제2회 BIMP-EAGA TVET 포럼 및 교육정상회담, 팔라완, 2018년</li> <li>· 제3회 BIMP-EAGA TVET 콘퍼런스 말레이시아 쿠칭, 2023년</li> </ul>
------------------------------	--

<p><b>TVET,HEI 네트워크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ET과 HEI 간 연대 구상</li> <li>· AQRF에 맞는 교육 개발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 파트너십 강화</li> <li>· 교사와 학생 교류를 통한 기술, 연구 이전과 노동 이동성 촉진</li> <li>· 팔라완 주립대학과 사바 대학 BIMP-EAGA 콘퍼런스 개최, 2023.</li> </ul>
<p><b>BIMP-EAGA 기업가정신캠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ET와 HEI 학생 대상. 참가 인원은 30명으로 제한, 기업가 정신, 리더십 기술과 지식, 문화적 인식, 창의적·비판적 사고능력 증진</li> <li>· 제1회 BIMP-EAGA 기업가 정신 캠프, 온라인, 2021년</li> <li>· 제1회 BIMP-EAGA 기업가 정신 경연대회, 2022년</li> </ul>
<p><b>관광 분야 전문가 양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 분야는 BIMP-EAGA 핵심 발전 분야 중 하나로, EAGA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양성 강화 필요</li> <li>· ASEAN 관광 표준을 준수하여, 교육과 훈련프로그램 개발</li> <li>· EAGA 내 동일 직급의 관광 종사자를 파견하는 시범사업 시행</li> </ul>

출처: BIMP-EAGA, BIMP-EAGA TVET, Universiti Malaysia Sabah 공식 홈페이지, BIMP-EAGA VISION 2025.

BIMP-EAGA 고등교육 협력은 HEI를 중심으로 교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사바 대학과 사라왁 대학이 주도하여 총 35개의 고등기관이 협력 중이다. HEI는 아세안 대학 간 학부생 교류프로그램(ASEAN International Mobility for Students: AIMS), 아세안 학점교환프로그램(ASEAN Credit Transfer System: ACTS)과 고등교육 질 보장 지침(AUN AQ Guideline, UNESCO APQN Toolkit)을 주축으로 BIMP-EAGA 내 학술적 교류를 넘어 국제적인 지역 네트워크 확대하고자 한다(Atty, 2021). AIMS는 2009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정부와 동남아시아 교육 장관기구(Southeast Asian Ministers of Education Organization)의 고등교육개발센터(Regional Center for Higher Education and Development)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아세안의 주요 교육협력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세안은 AIMS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국제교류를 장려하여 아세안 국가 간의 교육환경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SHARE, 2020). ACTS는 아세안 대학 네트워크(AUN)에 참여하는 대학에서 1-2학기 동안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로, 학점 취득, 지식 공유와 학생 네트워크 형성이 목적으로 학업 성취 등급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3. 팬데믹 이후 BIMP-EAGA의 노동시장 변화

2020년 ADB는 팬데믹 이후 동남아시아의 소지역에서 소득이 가장 감소한 직업은 자영업자와 농업 관련 종사자로, 평균소득의 83%가 감소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조치로 인해 관광, 도소매업, 외식업 및 서비스 분야가 심각한 영향을 받았고, 저숙련 근로자 대부분은 가장 먼저 해고대상자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비대면 근무 및 학습으로 인해 인터넷 활용은 필수 능력이 되었고, 노동시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산업의 증가로 정보통신기술(ICT)에 능숙한 인력 수요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IMP-EAGA, 2020). 디지털 환경으로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ICT 접근성이 낮은 소지역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ADB는 팬데믹 이후 소지역의 관광산업을 회복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마케팅, 고객 응대 및 관리를 제안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은 디지털 기술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제한적이고, 교육 기회가 적어 디지털 솔루션 채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BIMP-EAGA, 2023). 라메쉬(Ramesh) ADB 사무총장은 “팬데믹은 지역 간 격차를 심화하였다. 정부는 전염병 대응에 따른 교훈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 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 격차를 좁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의 접근성을 완화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노동시장과 생활 수준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HRD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ADB, 2021).

하지만 BIMP-EAGA HRD 현황은 소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아세안의 기존 프로그램을 차용하여 소지역에서의 활용성이 떨어진다. 특히, 팬데믹 이후 변화된 노동수요에 대한 인적자원 공급방안은 아직 미흡하다.

## 4. BIMP-EAGA의 효율적인 HRD를 위한 과제

### 1) 유기적인 HRD 협력 체계 구축

BIMP-EAGA는 상호협력하여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장기간 자국의 경제회복에만 집중하여 경제협력체로서의 의미는 무상하였다. 게다가 1998년에 발생한 칼리만탄 다약족(Dayak)과 마두르족(Madurese) 간 종족 갈등과 민다나오의 이슬람 분리주의 등 다양한 지역갈등이 중첩되어 소지역을 포용하는 유기적인 협력관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구보경, 2022: 197). 2006년 일본, 호주, ADB 등 개발파트너의 지원으로 제도적 틀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 로드맵을 구현하고, 2017년에는 HRD를 포함한 5개 협력 분야의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개발파트너와의 협업이 가시화되면서 소지역경제협력체로서 역할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2019년 발병한 COVID-19 대유행으로 BIMP-EAGA의 협력관계를 다시금 둔화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강제적인)은 노동시장과 교육환경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팬데믹 동안 직장을 잃은 저숙련 노동자와 여성 그리고 젊은 인력들 대부분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더 낮은 조건의 생산직에 고용되었고, 학교 폐쇄와 비대면 근무로 인해 이러닝과 온라인직무가 증가하였다. BIMP-EAGA는 제 14차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하여 인적자원이 시장수요와 위기에 적절히 적응하도록 디지털 교육 지원을 약속하고, 팬데믹 상황에 따른 HRD 전략 발전을 주제로 논의하였다(BIMP-EAGA, 2021).

BIMP-EAGA의 HRD 전략 개선에 관해서는 2022년에 시행한 BIMP-EAGA HRD WG 회의에서 사비니아노(Sabiniano Canama) 위원장도 강조한 내용이다. 팬데믹 이후 EAGA에 도래한 기술혁신과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HRD 협력은 지속되어야 하며 지속

적인 정책지원과 관리를 위해서 기존의 HRD 전략을 팬데믹 이후의 상황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Press and Public Affairs Bureau Philippines, 2022). 2017년 수립된 BIMP-EAGA의 HRD 협력 전략은 지역 수요에 따른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연간 최소 8개의 교육 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성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협력 전략은 부재하고, 실질적으로 HRD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말레이시아-EAGA가 포럼과 대학 기반 행사를 주최하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거점 기관으로 역할을 하진 않는다. 또한, 소지역 맞춤형 전략이 아닌 기존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활용도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 대학은 AIMS와 ACTS를 통해 학생 교류를 증진하고자 하나, 실질적으로 아세안 학생들은 아세안 내 교류보다는 영어권이나 서구권 국가를 선호하여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SHARE, 2020). 그리고 EAGA의 35개 고등교육기관 중 AUN에 가입한 대학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대학 하나로, 학생들이 실제로 학점 인정제도를 활용하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아티 알리수아그(Atty. Alisuag) 민다나오 고등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일본 아세안센터가 주최한 'BIMP-EAGA SCE 심포지엄'에서 BIMP-EAGA의 HRD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주안점을 제시하였다. 회원국의 HRD 관련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식별, 구현 그리고 모니터링을 위한 소지역 맞춤형 HRD 전략 수립과 거점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 기관 간 신뢰성이 부족하여 지식 및 기술 공유와 교육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H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민간 부분, 개발파트너와의 강력한 협력과 협업을 강조하였다(Atty, 2021). BIMP-EAGA가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의 수요에 기반한 HRD 전략을 재정비하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지식을 공유하며, 거점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HRD 협력 체계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 2) 디지털 교육을 위한 환경과 수요분석

BIMP-EAGA는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성장삼각지대(Indonesia- Malaysia- Thailand Growth Triangle: IMT-GT)와 협력하여 '관광 회복 프로그램(Recovery Communications Plan and Toolkit 2022-2024)'을 수립하고, 투자 확대와 무역 촉진을 위해 'BIMP-EAGA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 for Shared Prosperity: BIMP-EAGA)'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더불어 기존 경제회랑을 보완한 북서경제회랑(North-West Economic Corridor)을 설립하였고,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출시하여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였다(BIMP-EAGA, 2021). 또한 아세안이 2020년에 출시한 'Go Digital ASEAN'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디지털 기술이 생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BIMP-EAGA, 2020b).

ADB와 LinkedIn는 2022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와 비교군으로 싱가포르, 미국과 호주의 38,000명 고용주를 대상으로 '디지털 직업과 디지털 기술(Digital Jobs and Digital Skills: In ASIA the Pacific)' 주제로 설문 조사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대상 지역의 고용주는 신입직원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사용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같은 디지털 기술을 갖기를 원한다고 답하였고,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인도의 고용주 75%가 지난 5년 동안 디지털 역량을 가진 신규직원 채용을 늘렸다고 답하였다(ADB, 2022).

<표 4> 2020~2021년 고용수요

순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1	그래픽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기술자	고객 서비스 담당자
2	마케팅 전문가	사무원	프로젝트 기술자
3	소프트웨어 기술자	프로젝트 기술자	금융 자문가
4	교사, 강사	프로젝트 관리자	그래픽 디자이너
5	판매원	마케팅 전문가	소셜미디어 관리자

자료: ADB, 2022. Digital Jobs and Digital Skills

<표 4>과 <표 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국가의 2020-2021년 고용수요와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 1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직업을 나타낸다. 본 조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봉쇄 조치가 가장 강하였던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제외하였다. 3개국의 고용수요가 높은 직업은 그래픽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기술자 그리고 고객 서비스 담당자로 조사되었다. 1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직업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소셜 미디어 작업에 관련한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고, 말레이시아는 인적자원 및 비즈니스 개발 영역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낸다(ADB, 2022b: 12). 더불어 본 설문 조사에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고용주 70%가 디지털 기술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기를 원한다고 답하여,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갖춘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ADB, 2022b).

<표 5> 2020~2021년 1년 동안 빠르게 성장한 직업

순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1	온라인 콘텐츠 개발자	비즈니스 개발자	소셜미디어 관리자
2	콘텐츠 작가	교사, 강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3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문가	소프트웨어 기술자	그래픽 디자이너
4	제작 전문가	프로젝트 기술자	프로젝트 관리자
5	카피라이터	프로젝트 관리자	금융 자문가

자료: ADB, 2022. Digital Jobs and Digital Skills



BIMP-EAGA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지역의 노동자들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 재정비를 구상하고 있다(BIMP-EAGA, 2022b). 하지만, 본 조사의 결과는 BIMP 국가 수준의 결과로 EAGA 지역의 수요와는 상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BIMP-EAGA는 ICT를 활용하여 주요 경제산업인 농업, 광업, 제조업(농사, 광물가공 해당) 그리고 에너지 분야를 발전하고자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EAGA와 필리핀-EAGA는 원자재 수출에서 부가가치 제품으로 상향 조정하여 산업구조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고, 말레이시아-EAGA와 석유산업이 주력인 브루나이는 자원기반의 제품에서 벗어나 할랄산업, ICT, 관광과 창조산업 등 다양한 산업활동으로 전환하고 있다(ADB, 2022c). EAGA의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고용수요에 부합하는 HRD를 위해서는 소지역 수준에 부합하는 디지털 융합훈련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먼저, 소지역 수준의 정확한 고용수요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더불어 BIMP-EAGA 비즈니스 협의회(BIMP-EAGA Business Councils, BEBC)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브루나이를 제외한 EAGA 역내 중소기업 대부분은 3차 산업에 참여하기에도 인력과 전문지식이 부족하다(BIMP-EAGA, 2020c). ICT를 활용한 디지털 경제를 준비하기 위해 포럼을 통한 정보공유를 하고 BEV2025 전략에 따라 2025년까지 소지역의 인터넷 접근율 100% 목표로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ICT 접근성과 교육 수준은 BIMP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BIMP-EAGA, 2021).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인터넷 사용자가 95%와 97%로 높은 수준이나, 인도네시아는 53.7%, 필리핀은 49.8%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가구당 인터넷 접속률이 18%로 연결성이 가장 낮다. 또한, ICT 활용 능력은 말레이시아 69%, 브루나이 57% 인도네시아 49%가 기본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ITU, 2022).

BIMP-EAGA의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팬데믹 이후 EAGA 지역의 고용수요와 ICT 인프라 환경분석이 우선순위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지역 수요에 기반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 구보경. 2022. 「아세안 소지역협력의 제도화 과정과 함의: BIMP-EAGA를 중심으로」, 『한국아시아학회』 제25권 제2호, pp.185-208.
- 현민. 2019. 『아세안의 발전주의적 지역개발협력과 역외의존적 지역개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제3호, pp.237-277.
- ADB.2021.(<https://www.adb.org/news/youth-women-among-most-vulnerable-job-loss-southeast-asia-during-covid-19-adb>). (검색일: 2023. 03. 14)
- ADB. 2022.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22*. ADB. Manila.
- ADB. 2022b. *Digital Jobs and Digital Skills: A Shifting Landscape in Asia and the Pacific*. ADB. Manila.
- Ariff, M. 2006.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BIMP-EAGA region: Strengths of Malaysia-EAGA institutions of high learning."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1;pp. 35-45.
- Atty, J., C, A,. 2021. (<https://www.asean.or.jp/ja/wp-content/uploads/sites/2/2.-Presentation-on-BIMP-EAGA-Education-PDF.pdf>). (검색일: 2023. 01. 17)
- BIMP-EAGA. 2017. (<https://bimp-eaga.asia/documents-and-publications/bimp-eaga-vision-2025>). (검색일: 2023. 01. 15)
- BIMP-EAGA.2020.(<https://bimp-eaga.asia/article/self-employed-agriculture-workers-suffer-deepest-cuts-income>). (검색일: 2023. 01. 15)
- BIMP-EAGA.2020b.(<https://bimp-eaga.asia/article/why-bimp-eaga-needs-get-ready-fourth-industrial-revolution>). (검색일: 2023. 01. 15)
- BIMP-EAGA.2021.(<https://bimp-eaga.asia/article/bimp-eaga-deepen-digital-integration-and-connectivity-line-asean-thrust>)(검색일: 2023. 02. 15)
- BIMP-EAGA.2022a.(<https://bimp-eaga.asia/documents-and-publications/bimp-eaga-glance-2022>). (검색일: 2023. 01. 15)
- BIMP-EAGA.2022b.(<https://bimp-eaga.asia/article/building-green-and-smart-city-indonesias-new-capital>).(검색일: 2023. 03 14)
- ITU. 2022. (<https://www.itu.int/en/ITU-D/Statistics/Dashboards/Pages/Digital-Development.aspx>) (검색일: 2023. 02. 10)
- Press and Public Affairs Bureau Philippines. 2022.(<https://www.congress.gov.ph/photojournal/zoom.php?photoid=3508>). (검색일: 2023. 01. 25)
- SHARE. 2020. *Study on Enhancing Intra-ASEAN University Student Mobility*. SHARE Project Management Office. Jakarta.
- TESDA, 2016. (<https://www.tesda.gov.ph/Media/NewsDetail/15569>)(검색일: 2023. 02. 10)
- TVETSarawak. 2023. (<https://tvetsarawak2023.my/>). (검색일: 2023. 03. 14)

## ■ 필자소개

구보경 박사는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에서 국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지역학, 문화인류학, 역사학, 개발학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의 재난 인식 및 대응 그리고 인도적 지원 분야를 연구하였다. 현재 부산외대 아세안 연구원에서 아세안 해양동남아의 소지역협력체인 BIMP-EAGA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은 재난구호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필리핀 하이옌 태풍 사례(2018), 인도네시아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선택적 수용과 현지화(2020), 미얀마의 재난관리와 인도적 지원의 선택적 수용에 대한 외부적 관찰(2020), 아세안 소지역협력의 제도화 과정과 함의: BIMP-EAGA를 중심으로(2022), BIMP-EAGA의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전망(2023) 등이 있다.



## 연구원 소개

<아세안연구원>은 1997년 아시아지역연구소로 출범하였으며, 이후 동남아시아연구소(2007~2021), 동남아지역원(2010~2019)이란 연구소명으로 활동하다가 아세안공동체의 출범과 한-아세안 관계 심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2019년에 현재의 연구소명을 변경하였다. <아세안연구원>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축적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총체적 단위로서의 동남아시아의 인식과 구성」이라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 지원사업 해외지역연구에 선정되어 총 10년간(2009.09~2019.08)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했다. 현재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전략적지역연구형)에 선정되어 향후 6년간 「아세안 소지역(subregion) 연계를 통한 신남방정책 고도화 전략 연구」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강대국 간의 경쟁 심화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아세안을 향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전략적 접근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아세안연구원>은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년에 두 번 SCOPUS 등재 국제영문학술지(SUANNABHUMI)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 과정(동남아시아학 석사 및 박사)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중확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발행일자

2023년 4월 28일

## 발행처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주소: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센터 A504호

이메일: [iseas2@bufs.ac.kr](mailto:iseas2@bufs.ac.kr), [kiasbufs1990@gmail.com](mailto:kiasbufs1990@gmail.com)

홈페이지: <https://iseas.bufs.ac.kr/>

전화: 051-509-5670(+82-51-509-5670)

팩스: 051-509-6649(+82-51-509-6649)

본 이슈페이퍼는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이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NRF-2021S1A5C2A01087076) 지원을 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연구원 이슈페이퍼를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들은 아세안연구원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